

국제해양정세리포트

No.22

2024/5

발행인 김종덕 | 총괄 박수진 | 감수 최지연 | 담당 이서희·황수연

Email dokdo.oceanlaw@kmi.re.kr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문의 독도·해양규범연구실(051-797-4707)

Contents

국제기구/ 국제규범

파리협정(Paris Agreement)	2
파리협정 파리협정 크레딧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항소·고충처리절차' 도입	
유엔환경계획(UNEP)	4
UNEP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제4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개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9
OECD OECD에 블루닷네트워크(BDN) 사무국 출범	

지역별 동향

아시아	14
중국 인공섬 건설 등 지정학적 경쟁으로 남중국해 산호초 황폐화	
2023년 중국 해경 순찰 활동 요약: 해경, 평시 남중국해 작전 주도	
대만 차이잉원 前 총통, 퇴임 전 이투 아바(Itu Aba) 방문 포기	
태평양 도서국	21
태평양 도서국 태평양 도서국-미국 新 남태평양 참치협약을 위한 MOU 체결	

행사안내

3개월 내 행사 계획	25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국제해양정세리포트는 최신 글로벌 동향을 소개하는 월간지로 이메일로 배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www.kmi.re.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수신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051-797-4707) 또는 이메일(dokdo.oceanlaw@kmi.re.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리협정

Paris Agreement

전문연구원 정현욱

파리협정 크레딧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항소·고충처리절차’ 도입

국제사회는 새로운 글로벌 탄소시장 구축을 위해 환경 및 사회적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를 채택하였다. 파리협정 제6조 4항 감독기구(Article 6.4 Supervisory Body)는 5월 3일 세계 탄소시장 설립 과정에서 취약한 지역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항소 및 고충 처리 절차(the Appeals and Grievances Procedure)’를 도입하기로 하고 즉시 발효했다.

‘파리협정 크레딧 메커니즘(credit mechanism)’으로도 알려진 파리협정 제6조 4항은 각국의 기후행동 계획을 경제적,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즉, 탄소 배출권을 발행·거래하여 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파리협정 제6조 4항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완화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메커니즘을 이 협정의 당사자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의 권한과 지침에 따라 설립한다. 이 메커니즘은 이 협정의 당사자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가 지정한 기구의 감독을 받으며, 다음을 목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회의가 관리하는 중앙화된 관리 메커니즘인 파리협정 제6조 제4항의 세부 목표는 ① 지속가능한 발전 증진 및 온실가스 배출의 완화 촉진, ② 당사자가 허가한 공공 및 민간 실체가 온실가스 배출 완화에 참여하도록 유인 제공 및 촉진, ③ 유치당사자 국내에서의 배출 수준 하락에 기여하고, 유치당사자는 배출 감축으로 이어질 완화 활동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며 그러한 배출 감축은 다른 당사자가 자신의 국가결정기여(NDC)를 이행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 ④ 전 지구적 배출의 전반적 완화를 달성하는 데 있다.

그런데 2023년 12월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당사국총회에서는 국제 탄소시장 개설을 위한 파리협정 제6조의 기술 지침에 대한 합의가 불발되었으며, 당사국들은 2024년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제29차 당사국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파리협정 감독기구 관련 규정을 통해 ‘항소 및 고충 처리 절차’를 도입한 것은 탄소배출 감축과 관련된 활동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의나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탄소배출 기준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구의 마리아 알지시(Maria Al-Jishi) 의장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취약한 지역 사회와 개인에 권한을 부여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평가했다. 마틴 헤션(Martin Hession) 부의장 또한 이번 절차 도입에 대해 “법치와 인권이 위협받는 세상에서 기본원칙을 지키는 데 작은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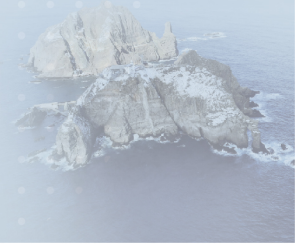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한편, 제6조 제4항에 따른 감독기구는 파리협정 당사국 중 12개국의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광범위하고 공평한 지리적 대표성과 성별 균형 보장을 위해 (a) UN의 5개 지역 그룹 각각에서 2명의 회원, (b) 최빈 개도국 출신의 회원국 1명, (c) 군소도서 개도국 출신의 위원 1명으로 선정된다.

그림 1. 파리협정 제6조 4항 감독기구 알지시 의장(우)과 헤션 부의장(좌)



그림 출처: UNFCCC(2024.5.3.)

출처 : [1] UNFCCC(2024.5.3.), UN Body adopts historic human rights protections for carbon market mechanism, <https://unfccc.int/news/un-body-adopts-historic-human-rights-protections-for-carbon-market-mechanism> (검색일: 2024.5.5.)
[2] UNFCCC, Article 6.4 Supervisory Body, <https://unfccc.int/process-and-meetings/bodies/constituted-bodies/article-64-supervisory-body> (검색일: 2024.5.13.)



유엔환경계획

UNEP

전문연구원 김 지 혜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제4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개최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제4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가 지난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170개국 회원국과 480여 개의 옵서버 기관을 대표하는 2,5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최대 참석 인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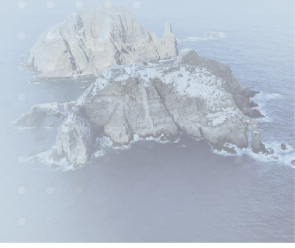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그림 2. INC-4 회의 전경



사진 출처: IISD 홈페이지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2022년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2)에서 결의안 5/14를 채택하며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해 국제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문서를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유엔환경총회는 새로운 국제문서를 개발하기 위해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설립하고 2024년까지 총 5차례의 INC 회의를 거쳐 협약 문안을 도출하기로 하였으며, 2023년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제1차 INC 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4차례의 INC 회의가 개최되었다.

제1차와 제2차 INC 회의에서는 주로 회의 절차 규칙과 INC 의장단 선출 논의에 상당한 시간이 할애되면서, 협약 문안 자체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나, 제2차 INC 회의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제3차 INC 회의



개최 전에 협약초안(zero draft)이 마련되면서, 협약 문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제3차 INC 회의부터 이루어졌다.

제4차 INC 회의 주요 결과

제4차 INC 회의에서는 지난 제3차 INC 회의 결과를 반영한 협약 초안 수정본(revised zero draft)을 토대로 총 2개의 분과회(contact group)로 나누어 협약 문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갔다. 제1 분과회에서는 협약 초안 수정본 목차 상의 제1부와 제2부에 포함된 기술적 요소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제2 분과회에서는 제3부부터 제6부까지 이행조치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 논의하였다. 각 분과회는 2~3개의 소분과회를 추가로 구성하고 조항별 옵션 문안을 정리하여 협상을 준비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했다.

제4차 INC 회의에서는 국가들은 유엔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와 공정한 전환에 관한 조항 등 일부 합의 달성이 쉬운 조항에 대해서는 국가 간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되는 진전을 이뤘지만, 협약 문안에 1차 플라스틱 폴리머에 관한 규제 조항 포함 여부, 화학물질과 폴리머 규제 방안, 재정, 생산자책임재활용제, 특히 협약의 적용 범위 등을 두고 국가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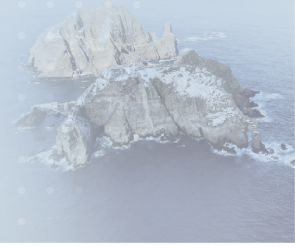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특히 협약의 범위에 대한 논의는 이번 제4차 INC 회의 중심에 있었다. 국가마다 UNEA 결의안 5/14에서 명시하고 있는 “플라스틱의 전 생애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플라스틱 생산도 협약에서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각기 달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플라스틱 폴리머와 같이 플라스틱의 원료 생산 단계서부터 규제하는 것이 국제사회가 직면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플라스틱은 현대사회에서 의류부터 보건 분야까지 다방면으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어, 플라스틱 생산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며, 협약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산유국 연합과 플라스틱 생산국, 관련 산업계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얹혀있어, 협약에서 플라스틱 원료 생산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표 1. 유엔 플라스틱 협약 초안문서 수정본 주요 구성 요소

논의그룹		목차	
제1 분과회	소분과회 1.1	제1부	1. 전문 2. 목적 3. 정의 4. 원칙 5. 범위
	소분과회 1.2, 1.3	제2부	1. 1차 플라스틱 폴리머 2. 우려되는 화학물질과 폴리머 3. 단기 및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과 의도적으로 첨가된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문제적 및 피할 수 있는 플라스틱 제품 4. 요청시 당사국에게 적용가능한 예외사항 5. 제품 디자인, 구성 및 성능 6. 非플라스틱 대체재 7. 포괄적생산자책임제도 8. 생애주기 동안의 플라스틱 배출 및 유출 9. 폐기물 관리 10. [목적에 있는 화학물질[, 폴리머] 그리고 제품, 그리고 플라스틱 폐기물 에 관한 거래 [관련 조치] 11. 해양환경을 포함한 기존 플라스틱 오염 12. 공정한 전환 13. 투명성, 추적, 모니터링 및 라벨링
제2 분과회	소분과회 2.1	제3부	1. 재정 2. 역량강화, 기술지원 및 기술 이전 [3]. 기술 [이전]
	소분과회 2.2	제4부	1. 국가[행동][이행]계획 2. 이행 및 준수 3. [이행] 진척 보고 4. 문서 이행의 진척사항에 대한 정기적 평가 및 모니터링 [그리고 효과성 평가] 5. 국제협력 6. 정보교류 7. 인식제고, 교육 및 연구 [그리고 개발] 8.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 참여
		제5부	1. 운영위 2. 부속 조직 3. 사무국
		제6부	*INC-5에서 법률성안그룹이 최종조항 제시 예정
		잠재 부속서	A.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그리고 우려되는 화학물질과 폴리머 B. 단기 및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과 의도적으로 첨가된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문제적 및 피할 수 있는 플라스틱 제품 C. 제품 디자인, 구성 및 성능 D. 공통된 원칙 기반 EPR 시스템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방식 E. 플라스틱 생애주기 동안의 배출과 F. 폐기물 관리 G. 국가계획을 위한 양식 [X] 플라스틱 생애주기 각 단계에서의 효과적 조치

표 출처
INC-4
회의기록
참하여
자차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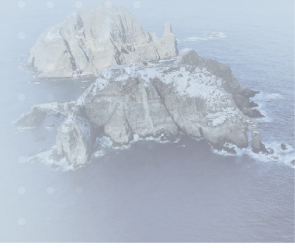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이에 비해 국가들은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는 비교적 큰 이견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월경성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제외하면 플라스틱 폐기물은 주로 각국의 관할권 범위 내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어구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도 큰 이견은 없지만, 어구 또한 생산서부터 전 생애주기를 협약에서 다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일부 국가는 생분해 어구 등의 플라스틱 대체재 구매력이 없는 어부의 경우 의도치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재정에 관한 조항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으며, 그중에서도 협정 이행을 위한 독립적인 기금을 확보하는 것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주요 관심 의제였다.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글로벌 플라스틱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대신 본 협약만을 위한 새로운 독립적인 기금을 설립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수렴되는 모습을 보였다. 기금의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의견이 존재하여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제4차 INC 회의의 진척 사항에 대해 여러 국가들이 많은 아쉬움을 나타냈으며, 올해 11월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마지막 INC 회의를 앞두고 국가들은 결의안 5/14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제5차 INC까지 합의된 협약 문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회기간 작업(intersessional work)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따라서 ‘금융 및 이행 수단 작업반’은 협약의 이행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재원 및 이행 수단에 대해 분석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으며, 두 번째 임시 전문가그룹인 ‘과학기술 작업반’은 플라스틱 제품, 우려되는 화학물질, 그리고 관련 디자인 이슈에 관한 기준 등을 논의하게 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가들은 차기 INC 회의부터 ‘법률전문가그룹(Legal drafting group)’을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정책적 시사점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마지막 INC인 제5차 INC 회의는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우리나라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UNEA 결의안 5/14에 따라 제5차 INC 회의까지 합의된 협약 문안 협상이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실상 이번 제4차 INC 회의부터 협정 문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본격적으로 각 국가들이 입장을 표명하고 협의·조정하기 시작하였으며, 개별 국가들은 협약의 범위와 규제 수준, 규제 강도에 대해 서로 다른 비전과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이 확연히



드러났다. 즉, 플라스틱 오염 종식으로 위해 플라스틱의 전 생애주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는 대다수 국가가 동의하나, 플라스틱 생산 원료가 되는 1차 폴리머의 규제 여부, 우려되는 화학물질의 범위, 자원 마련 방식 등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 플라스틱 생산국과 소비국 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동시에 대안 플라스틱의 연구개발, 관련 산업의 영향 최소화 등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출처 : [1] UNEP(2024.4.29.), “Road to Busan clear as negotiations on a global plastics treaty close in Ottawa”, <https://www.unep.org/inc-plastic-pollution/media#PressRelease29Apr>(검색일: 2024.5.10)

[2] IISD(2024.5.2.), “Summary of the Fourth Session of the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to Develop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Plastic Pollution: 23–29 April 2024”, <https://enb.iisd.org/plastic-pollution-marine-environment-negotiating-committee-inc4-summary/>(검색일: 2024.5.10)

[3] 박수진·이윤정·김지혜·김지윤(2024), 유엔 플라스틱 협약의 주요쟁점 분석 및 대응방향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전문연구원 황수연

OECD에 블루닷네트워크(BDN) 사무국 출범

블루닷네트워크의 목적과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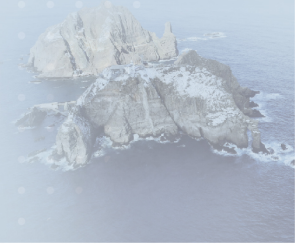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2024년 4월 9일 OECD에 '블루닷네트워크(BDN: Blue Dot Network)' 사무국을 공식 출범했다. BDN는 2019년 1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에 맞서 공표¹⁾한 경제 정책으로 글로벌 인프라에 대한 강력한 표준을 발전시키고 개발도상국에 투자 증진을 목표로 하는 '다자간 이니셔티브'이다. BDN 사무국²⁾은 BDN 인증 프레임워크³⁾ 운영을 감독하는 독립인증기관으로서 사회·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투명하며,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인프라 사업에 대한 국제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인프라 사업에 대한 인증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기후변화 완화, 인류 복지 향상에 필수적인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한다.

그림 3. OECD 블루닷네트워크 출범식



그림 출처: 블루닷네트워크
홈페이지(2024.4.9.)

- 1)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11월 4일 방콕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포럼을 주최하고 '블루닷네트워크'(Blue Dot Network)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 2) 회원국 중 블루닷네트워크 운영위원회(미국, 일본, 호주, 스페인, 영국, 스위스, 터키)은 BDN 운영전략 제시 및 사무국 감독 기능을 수행하며, 사무국은 BDN 인증 운영을 감독하고 운영위원회를 지원한다. 사무국은 OECD 소속 독립기관으로 설립되었으나 자체 거버넌스를 조직한다.
- 3) 블루닷네트워크 인증 프레임워크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세계에서 지속가능한 인프라 개발을 위한 미국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 호주 외교통상부(DFAT)의 공동 프로젝트이다.



인프라 사업자는 소속 국가의 BDN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인프라 개발 사업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BDN 인증을 통해 투자자는 사업 품질에 대한 신뢰 구축으로 사업 위험성을 저감 할 수 있고, 사업자는 ESG 표준 보고 절차의 간소화 및 금융기관 대출 요건 충족을 통한 원활한 자금 조달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BDN 프레임워크를 통해 인증 대상 사업지가 위치한 지역사회는 양질의 인프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정부는 지속가능한 개발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블루닷네트워크(BDN) 인증 프레임워크

2024년 5월 7일 발표한 BDN 인증 프레임워크는 OECD에 설치된 세계 최초의 글로벌 인프라 인증 프레임워크이다. 기존 인프라 투자 관련 80여 개 국제 표준 및 프레임워크를 종합화⁴⁾하여 마련한 것으로 ‘G20의 고품질 인프라 투자 원칙’⁵⁾ 이행을 위한 최초의 글로벌 프레임워크이다. BDN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해당 인프라 사업이 환경, 사회, 경제 및 거버넌스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고 영역별 주요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해소했음을 의미한다. BDN 인증을 희망하는 인프라 사업은 이해관계자 간 이해를 확립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10가지 기준 및 핵심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각 요구사항에 대한 등급 부여는 ‘필수, 우수, 최고’ 세 가지 수준으로 분류되며 ‘필수’는 인증을 위한 최소 요구사항을 충족할 경우, ‘우수’는 국제 표준 기준을 초과하고 사업 이해관계자에 추가적인 위험 감소를 제공할 경우, ‘최고’는 혁신적인 사업 수행으로 강력하고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될 경우에 부여한다. 예를 들면 핵심 요구사항 6번(현지 기술이전 및 역량 구축) 중 ‘6.2 현지 근로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필수’ 기준은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교육 제공, ‘우수’ 기준은 사업지 현지 인력에 현지 역량개발 프로그램 제공, ‘최고’ 기준은 현지 인력 및 현지 소외계층 대상 교육 제공으로 구분한다.

4) 적도원칙(the Equator Principles), IFC 성능 표준(the IFC Performance Standards), G20의 고품질 인프라 투자 원칙(the G20 Principles for Quality Infrastructure Investment) 등 널리 합의되고 인정되는 기존 인프라 투자 관련 국제 표준에도 부합한다.

5) G20의 고품질 인프라 투자 원칙(the G20 Principles for Quality Infrastructure Investment)은 2019년 6월 G20 금융 및 중앙은행 회의와 G20 오사카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원칙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전략을 제공한다. G20은 19개 주권 국가와 유럽연합(EU), 아프리카연합(AU)으로 구성된 정부간 협의체로 국제 금융 안정성, 기후 변화 완화, 지속 가능한 개발 등 세계 경제와 관련된 주요 문제를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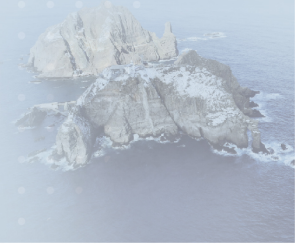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표 2. 블루닷네트워크(BDN) 인증 프레임워크의 기준 및 핵심 요구사항

구분	세부 인증 요구 사항
1.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과 발전을 촉진한다.	•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와 부합성 • 국가 및 지역 개발 전략과의 연계 • 일자리 창출 • 인프라 서비스 이용
2. 적절한 공공 자금 사용을 통해 시장 및 민간 부문 주도의 투자를 촉진한다.	• 민간부문 참여 • 지속 가능한 자금 조달 • 경쟁적 환경 • 위험 분산 및 완화 • 촉매 금융(민간 재정 동원을 위한 공공재정 활용)
3. 건전한 공공 재정 관리, 부채 투명성, 프로젝트 수준 및 국가 수준의 부채 지속 가능성을 지원한다.	• 부채 공개 • 공공재정 지속가능성
4. 기후변화, 재해 및 기타 위험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지구 온도 변화를 1.5℃ 이내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2050년 net-zero 배출 프로젝트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구축한다.	• 온실가스 배출 • 기후 위험 • 기후 정보공개(Climate disclosure) • 재해 위험 평가 • 탄력적인 계획 및 설계 • 비상 대비 및 대응
5. 자산 전주기비용 대비 자산 가치를 보장한다.	• 생애주기 평가에 기초한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 제공 모델 선택(공공-민간 파트너십 vs 기존 조달) • 수명주기 비용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 있는 조달 • 효과적인 프로젝트 관리, 모니터링 및 감독 • 효율적인 유지관리 • 기술 및 혁신
6. 현지 기술이전과 현지 자본시장에 중점을 둔 현지 역량을 구축한다.	• 역량개발 • 기술이전 • 현지 자본시장
7. 투명한 자금조달 및 협의 과정을 장려하고 부패 방지를 촉진한다.	• 부패방지 • 투명한 조달
8. 노동권 및 인권 존중을 포함한 환경 및 사회적 보호에 관한 국제 모범을 유지한다.	•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 관리 • 프로젝트 개발지의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의 참여 • 생물다양성 • 오염 • 자원 효율성 • 폐기물 및 유해물질 • 인권 • 노동 및 근로 조건 • 지역사회 건강 및 웰빙 • 원주민 • 비자발적 재정착 및 토지 이용 제한 • 문화 유산
9. 인프라 서비스의 차별없는 이용을 장려한다.	• 차별 없는 계약 •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 • 지속 가능하고 지불 가능한 가격 책정
10. 여성, 장애인, 소외집단에 포용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 여성과 소외된 집단의 요구사항 반영 • 소외집단에 취업 기회 제공 • 여성과 취약한 사용자를 위한 안전과 웰빙

표 출처: OECD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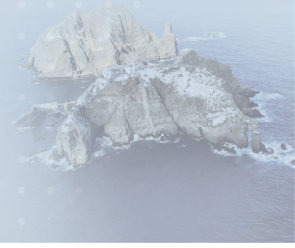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BDN 인증 시범 사업

BDN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해 2019~2021년 BDN 회원국과 OECD는 민간 부문, 시민사회, 노동조합, 학계에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했다. 2022~2023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술지원을 받아 시범 사업 수행 및 BDN 인증 프레임워크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쳤다. 미국 국무부는 시범 사업 1단계 사업은 성공적이었으며 특히 BDN 인증 프레임워크 핵심 요구사항은 기존의 많은 인프라 표준과 일치하고 조화를 이루며 국가가 탄소배출 감소, 양성평등 촉진, 건강 및 복지 개선,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등 UN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를 반영한다고 발표했다.

1단계 시범사업(4건, 2023년 2월 완료): ① 남미 최대 풍력발전 '라고스 도스 벤토스(Lagoa dos Ventos)' 사업은 브라질 에넬 아메리카(Enel Américas)의 남미 최대 규모 풍력 발전소(1.5GW, 터빈 230기) 개발 사업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청정에너지를 제공하고 일자리 및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을 지원한다. ② 인도네시아 녹색 데이터 센터 (Indonesia Green Data) 사업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구축한 인도네시아의 최첨단 그린 데이터 센터는 디지털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③ 유라시아 터널 사업은 한국 SK에코 플랜트와 터키 예프 마르키스(Yapı Merkezi) 개발한 해저터널(아시아와 유럽대륙을 연결하는 5.4km 자동차 전용 터널)이다. 해당 해저터널은 역사 도시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기여하는 동시에 연한 기간 동안 약 41억 달러(약 5조 4,740억 원)의 생산성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된다. ④ 브라질의 물·위생 사업 '아구아스 도 리오(Aguas do Rio)' 사업은 브라질 최대 수처리 기업인 에지아(Aegea)가 개발한 브라질 물·위생 프로젝트로 물 공급 범위를 브라질 도시 지역 인구의 99%로 늘리고 하수 공급 범위를 90%로 늘려 환경 복원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2단계 시범 사업(4건, 진행 중): 팔라우 해저 광케이블 사업은 미크로네시아, 나우루, 키리바시를 연결하는 해저 광케이블 설치 사업으로 일본, 미국, 호주가 태평양 도서국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위성 인터넷에 의존하고 있는 나우루와 키리바시는

6) 기존 해저 광케이블은 미군 기지가 있는 괌과 미국과 긴밀한 안보 관계를 맺고 있는 미크로네시아를 연결하고 있으며, 팔라우 해저 광케이블 사업을 통해 미크로네시아에서 나우루를 거쳐 키리바시까지 연장(약 2,250km 길이)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일본 NEC사 주도로 추진되며, 총 9,500만 달러(130억 엔)를 투자하여 2025년 완공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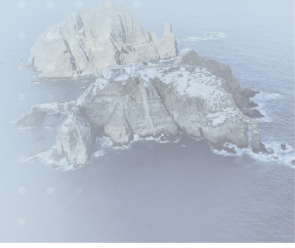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해당 사업을 통해 1만 명 이상의 국민에게 고속·고품질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 외 2단계 시범 사업으로 콜롬비아 공항 사업, 모로코 곡물 사일로 사업, 베트남 연안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적 시사점

OECD는 전 세계 인프라 투자 격차를 연간 2조 5,000억~3억 5,000억 달러로 추산하였으며, 인프라 개발을 위한 공공부문 자금 조달 외에 민간 부문 투자 동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4년 4월 19일 열린 G7 외무장관 성명에서 저중소득 국가 부채와 자체 인프라 개발 투자 재정 여력 부족 문제로 인한 2030 의제 이행 지체, 자금 격차 해결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장기 자금 조달 여건 조성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해당 성명에서 개발도상국에 민간투자를 동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BDN 인증 제도의 출범을 환영하며, 빈곤 퇴치 및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 개발 금융 제도 강화와 양자 파트너 및 민간 부문의 자금 조달을 동원하기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BDN 주도국인 미국은 나이지리아 인프라 투자 협력(2024년 5월 6일), 페루 고위급 대화 공동성명(2024년 5월 9일) 등 양자 간 경제 협력에서 BDN 원칙을 제시하며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노력을 하고 있다. 일본은 BDN 제도 설계 단계에 적극 관여하여 일본 기업의 해외 인프라 투자 전개 및 촉진에 기여를 목표로 정부 국제개발협력 예산에 BDN 사무국 운영 기금(2023년 11.7백만엔, 2024년 33.8백만엔)을 반영하였다. 우리나라도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인프라 사업 추진 및 투자 유치,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BDN 프레임워크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 출처 : [1] 블루닷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s://www.bluedot-network.org/>(검색일: 2024.5.16.)
 [2] 일본 외무부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gaiko/page2_000009.html(검색일: 2024.5.16.)
 [3]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https://www.state.gov/blue-dot-network/#ten-elements>(검색일: 2024.5.16.)
 [4] OECD 홈페이지 <https://www.oecd.org/newsroom/the-blue-dot-network-begins-global-certification-framework-for-quality-infrastructure-hosted-by-the-oecd.htm>(검색일: 2024.5.17.)
 [5] submarine telecom forum(2023.6.18.), “Japan, U.S., Australia Plan Undersea Cable to Support Pacific Island Nations”, <https://subtelforum.com/japan-u-s-australia-plan-undersea-cable/>(검색일: 2024.5.17.)
 [6] enel 홈페이지 <https://www.enelamericas.com/en/media/press/20221/03/enel-americas-finalizo-el-piloto-de-calidad-en-infraestructura-d.html>(검색일: 2024.5.17.)



아시아

중국

전문연구원 정 현 욱

인공섬 건설 등 지정학적 경쟁으로 남중국해 산호초 황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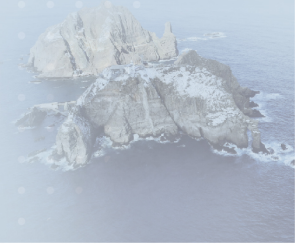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중국과 필리핀 등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들이 인공섬 건설을 위한 준설 공사를 확대하면서 남중국해의 중요한 해양생태계인 산호초가 황폐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외교 전문 싱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센터(CSIS :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산하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AMTI : 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는 최근 “남중국해에 대한 환경 위협 (Environmental Threats to the South China Sea)”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남중국해의 인공섬 건설 작업으로 인해 25km² 이상의 산호초가 파괴되었으며, 피해의 75%는 중국에 의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림 4. 미스치프 암초 주변에서 준설 작업 중인 중국 선박



그림 출처: Indo-Pacific Defense Forum(2024.1.5.)

남중국해에서는 중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와 대만이 도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중국은 특히 인공섬 건설을 통해 영유권 주장과 함께 이 지역에서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AMTI에 따르면, 중국은 인공섬 건설 과정에서 절단형 준설선으로 암초를 쪼개고 부유 파이프라인을 통해 퇴적물을 얇은 지역으로 펌프질하여 매립지로 퇴적하는데, 이 과정은 해저생태계를 교란하여 주변 해양생물을 훼손하며, 산호초의 자체 복원능력을 넘어서는 연마성 퇴적물을 생성한다. 베트남 역시 남중국해 상의 전초기지에서 준설 작업을 진행하는데 최근까지 주로



건설 장비 등을 활용해 왔지만, 준설 속도가 빠른 절단형을 중국과 같이 사용하는 추세다. 즉,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을 둘러싼 각국의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하면서 산호초와 해양생물 등 환경 피해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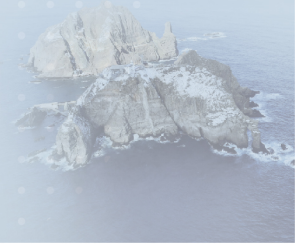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산호초는 해양생물에 먹이와 서식처를 제공함으로써 해양생태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 세계 해양생물의 약 25%를 지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산호초는 중요한 생태계로서, 세계 산호초 종류 중 약 34%는 남중국해에서 발견된다.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들의 준설 작업으로 남중국해 산호초가 황폐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가 크다. 한편, 인공섬 건설 활동 이외에 중국에 의한 대왕조개 포획도 산호초 손상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MTI는 중국 어민들이 암초에 붙어 있는 조개를 더욱 쉽게 수확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황동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등 산호초에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림 5. 남중국해의 산호초와 대왕조개



그림 출처: Bloomberg(2016.12.22.)

- 출처 : [1] 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2022.7.8.), MORE ISLAND UPGRADES ACROSS THE SOUTH CHINA SEA, <https://amti.csis.org/more-island-upgrades-across-the-south-china-sea/>
 [2] Bloomberg(2016.12.22.), Islands of Mass Destruction, <https://www.bloomberg.com/news/features/2016-12-22/coverup-in-the-south-china-sea>
 [3] CSIS(2023.12.18.), DEEP BLUE SCARS-Environmental Threats to the South China Sea, <https://features.csis.org/environmental-threats-to-the-south-china-sea/>
 [4] Indo-Pacific Defense Forum(2024.1.5.), Chinese dredging imperils South China Sea coral reefs: report, <https://ipdefenseforum.com/2024/01/chinese-dredging-imperils-south-china-sea-coral-reefs-report/>



아시아

중국

전문연구원 정현욱

2023년 중국 해경 순찰 활동 요약: 해경, 평시 남중국해 작전 주도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이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 해역에서 중국 해군이 아닌 해경(Chinese Coast Guard)이 중국의 평시 작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AMTI)'에 따르면, 지난해 남중국해 전역의 주요 지형물에서 중국 해경이 매일 순찰을 진행했다. AMTI는 선박 자동식별장치(AIS) 자료를 통해 중국 해경이 가장 자주 방문하는 5대 도서·암초는 세컨드 토마스 솔(Second Thomas Shoal), 루코니아 솔(Luconia Shoals), 스카보러 솔(Scarborough Shoal), 뱅가드 뱅크(Vanguard Bank), 티투 섬(Thitu Island)이었다고 밝혔다. 이 5개 지형물 주변에서 2023년 중국 해경이 순찰한 일수를 합하면 총 1,652일에 달한다.

그림 6. 남중국해 지형물에 대한 중국 해경 순찰일 수(2023년)



그림 출처: AMTI(2024.3.29.)

세컨드 토마스 솔 순찰일 수 최대폭 증가...루코니아 솔 순찰 최다

이중 최근 중국과 필리핀 간 긴장 상황이 자주 발생한 세컨드 토마스 솔(중국명 황옌다오)에 대한 순찰 일수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2023년



해당 지역에서 중국 해경의 순찰 일수는 총 302일로 전년도 279일보다 23일 증가했다.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남사군도)에 위치한 세컨드 토마스 솔은 중국, 필리핀, 대만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중국이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밖에 말레이시아 유전 개발 사업지 근처에 위치한 루코니아 솔에 대한 순찰 일수도 2022년 316일에서 2023년 338일로 22일 증가했다. 루코니아 솔은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며, 말레이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있고 현재 말레이시아가 관할 중이다.

반면, 스카보러 솔은 2022년 344일에서 2023년 311일로 33일 감소했다. 스카보러 솔은 중국, 필리핀,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필리핀 간 갈등이 심한 지형물 중 하나다. 원래 필리핀이 오랫동안 실효 지배해 왔으나, 중국이 2012년 이곳을 점령해 필리핀이 남중국해 분쟁을 2013년 상설중재재판소(PCA)에 회부하기도 했다.

또한 티투 섬에 대한 순찰 일수도 2022년 208일에서 2023년 206일로 2일 줄었다. 티투 섬은 중국, 필리핀, 대만, 베트남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필리핀이 실효 지배 중이다.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유일하게 필리핀이 활주로를 보유하고 있는 섬이다.

뱅크드 뱅크에 대한 순찰일은 2022년 310일에서 2023년 221일 비교적 큰 폭인 89일 감소했다. 뱅크드 뱅크는 물속에 완전히 잠겨 있는 지형물로, 베트남이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에 3개의 철골 구조물을 건설해 해군 전초기지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 베트남,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베트남이 실효 지배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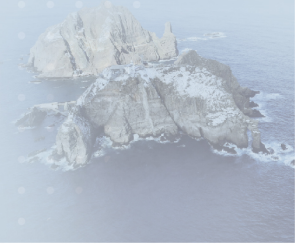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표 3. 2023년 중국 해경의 순찰 최다 지형물 5곳

구분	실효 지배 국가	중국해경 순찰일수	
		2022년	2023년
세컨드 토마스 솔	중국	279	302
루코니아 솔	말레이시아	316	338
스카보러 솔	필리핀 → 중국	344	311
뱅크드 뱅크	베트남	310	221
티투 섬	필리핀	208	206

표 출처: AMTI 자료 참고해 저자 작성

중국-베트남, 중국-말레이시아 간 분쟁 증가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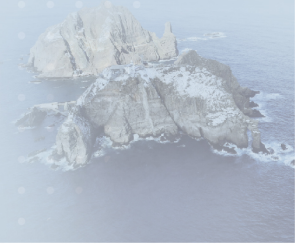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AMTI는 이러한 데이터는 올해 들어 세컨드 토마스 솔에서 중국 해경이



필리핀 해군 함정에 물대포를 쏘는 일이 이미 여러 차례 발생했지만, 이와 같은 일이 중국과 베트남 및 말레이시아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도 시간문제인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AMTI는 중국 해경의 실제 순찰 활동은 1,652일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해경의 송수신기가 비활성화되거나 위성 AIS 수신기에서 감지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가령 2023년 3월 20일 티투 섬의 위성 이미지에서는 AIS 플랫폼에 해당 신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자오진 급(718B 타입) 해경 소형 쾌속정(cutter)이 현장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한편, 중국 해경은 최근 스카보러 쏘 주변에서 구조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중국 해경 측은 이 주변 해역에서 조업하는 자국 어민들의 안전 보장을 위한 목적이며 정기적인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위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출처 : [1] 한국국방연구원(KIDA)(2022), 세계분쟁정보-남중국해 분쟁 주요 일지
[2] AMTI(2024.3.29.), CONTROL BY PATROL: THE CHINA COAST GUARD IN 2023, <https://amti.csis.org/control-by-patrol-the-china-coast-guard-in-2023/>(검색일: 2024.5.2.)
[3] AMTI(2017.8.4.), VIETNAM BUILDS UP ITS REMOTE OUTPOSTS, <https://amti.csis.org/vietnam-builds-remote-outposts/>(검색일: 2024.5.14.)
[4] China Military(2024.5.14.), China Coast Guard conducts rescue exercise in South China Sea, http://eng.chinamil.com.cn/CHINA_209163/TopStories_209189/16308427.html(검색일: 2024.5.14.)



아시아

중국

전문연구원 정현욱

대만 차이잉원 前 총통, 퇴임 전 이투 아바(Itu Aba) 방문 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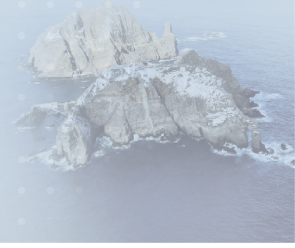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전(前) 총통이 5월 20일 퇴임 전 이투 아바(Itu Aba, 대만명 타이핑다오/ 太平島)를 방문할 것인지 논란이 분분했던 가운데 결국 중국의 안보 위협을 이유로 섬 방문이 무산되었다. 천쉐이벤(陳水扁), 마잉주(馬英九) 전 총통은 임기 말에 모두 이투 아바를 방문해 대만의 영토 주장을 재확인한 바 있어, 재임으로 8년의 집권을 마무리한 차이잉원 총통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대만 국가안보위원회(NSC) 측은 “이투 아바는 대만 영토가 분명하지만, 중국이 이 해역에서 하루 평균 6~20대의 항공기와 수십 척의 해군 및 해안 경비대를 운영 중으로, 차이잉원 총통의 이투 아바 방문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며 해당 섬 방문을 포기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타이핑다오 영유권 주장에 적극적인 국민당 등 야당 입법위원들은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며, 18일 타이핑다오를 직접 방문하고 최근 진행된 부두 수리 공사 상황 등을 시찰했다.

스프레틀리 군도 내 최대 섬...대만 외 중국, 필리핀, 베트남 영유권 주장

이투 아바는 대만 본도에서 약 1,600km 떨어져 있으며, 스프레틀리 군도(중국명 남사군도)에서 가장 큰 섬이다. 필리핀과 베트남에 더 근접해 있지만, 대만이 1956년부터 실효 지배 중이다. 대만이 1946년(당시 국민정부) 일본으로부터 수복한 후 1956년에 점령했고, 이후 대만 해군이 관할해 오다가 2000년부터는 해순서(海巡署, 해경) 남사지휘부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대만 외 중국, 필리핀, 베트남도 계속해서 이투 아바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은 자국의 일부이므로, “대만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이투 아바는 곧 중국 영토”라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2016년 양안(중국·대만) 관계가 비교적 긴밀했을 당시 마잉주 총통이 퇴임 전 군용기를 타고 이투 아바를 방문해 해당 섬의 주권이 대만에 있음을 발표했을 때, 중국 정부는 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민당 출신의 전임 마잉주 총통은 친중파로 분류되며, 양안 교류 확대를 주장했던 인물이다.

반면, 미국은 이투 아바를 둘러싼 각국의 영유권 분쟁에 대해 신중하고도



모호한 견해를 갖고 있다. 중국과의 긴장 상황과 함께 동맹국인 필리핀과 우호국(지역)인 대만이 동시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 총통의 이투 아바 방문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마잉주 총통의 이투 아바 방문 당시 미국은 대만 총통의 이투 아바 방문에 반대하며, “실망했다”라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차이잉원 전 총통의 이투 아바 방문 검토에도 부정적 견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만 정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남중국해 긴장이 고조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2000년 이투 아바에서 해병대를 철수하고 대신 해경 순찰대를 배치했다. 그러나 2022년 중국과의 관계가 냉각되면서 무력 충돌 긴장이 고조되자 유사시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하겠다는 명목으로 이투 아바 내 활주로 연장 공사를 추진했다.

그림 7. 스프래틀리 군도의 이투 아바(Itu Aba)



그림 출처: AMTI

- 출처 : [1] AMTI, <https://amti.csis.org/itu-aba-island/>
 [2] Taipei Times, 2024년 3월 22일, NSB head against Tsai visiting Itu Aba, <https://www.taipeitimes.com/News/front/archives/2024/03/22/2003815292>
 [3] 聯合新聞網, 2024년 5월 18일, 立委今考察太平島港側水深及碼頭整建 百噸級艇隔8年回防, <https://udn.com/news/story/10930/7972029>
 [4] 聯合新聞網, 2024년 5월 6일, 幕後／藍委突取消太平島考察 馬文君擬改至5月18日出發, <https://udn.com/news/story/6656/7945168>
 [5] 聯合新聞網, 2024년 3월 26일, 影／蔡總統未赴太平島 陳建仁：附近海域情勢頗為動盪, <https://udn.com/news/story/6656/7856239>

태평양 도서국

전문연구원 황수연

태평양 도서국-미국 新 남태평양 참치협약을 위한 MOU 체결

태평양 도서국-미국, 新남태평양 참치협약을 위한 MOU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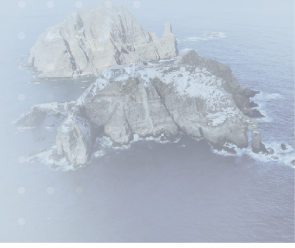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2024년 3월 28일 피지에서 미국 국무부와 태평양어업 회의기구(FFA: Pacific Island Forum Fisheries Agency)⁷⁾는 태평양 도서국 EEZ 내에서 미국 참치어업을 허용하는 '남태평양 참치협약(South Pacific Tuna Treaty)'을 갱신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2023년 6월 만료한 '남태평양 참치협약'의 신규 협약 채택(2025년 이후)까지 태평양 도서국 EEZ 내에서 미국이 참치어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의한 MOU도 체결했다. 미국 참치 조업선은 MOU에 근거하여 2025년 협약 개정문 공식 채택까지 태평양 도서국 EEZ 내에서도 계속해서 참치잡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신규 남태평양 참치협약'에는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2024~2033년 10년간 연간 6천만 달러) 및 태평양 도서국 산업에 대한 추가 지원 등 합의 내용이 담길 것이며, 2024년 2분기 협약 체결 예정이다.

그림 8. 아우무아 아마타 콜먼 라데와겐(Aumua Amata Coleman Radewagen) 하원의원(미국령 아메리칸사모아)이 '2023년 남태평양 참치협약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미 의회에서 연설하는 모습



그림 출처: Saipan Tribune 뉴스
(2024. 4.15.)

7) 태평양어업회의기구(Pacific Island Forum Fisheries Agency, FFA)는 중서부 태평양수역 17개 연안국(호주, 쿡 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 피지, 키리바시, 마셜 군도, 나우루, 뉴질랜드, 니우에, 팔라우, 파푸아 뉴기니, 사모아, 솔로몬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EEZ 내 입어 허용에 관한 규정 및 조건을 조업국에 제시하고, 조업 국가별 선망 어선 척수 제한 등 어업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정부 간 협의체이다.



미국 '1988년 남태평양 참치협약법' 주요 내용

'남태평양 참치협약법'은 '남태평양 참치협약(South Pacific Tuna Treaty)'의 적용 수역 내에서 참치 조업하는 미국이 기국인 상업용 어선을 규율하기 위한 미국 국내법으로 미국과 16개 태평양 도서국의 상호 의무 사항을 규정한다. 미국 '1988년 남태평양 참치협약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태평양 참치협약에 근거하여 태평양 도서국 당사국에 의해 선박이 압류된 경우, 미국의 '매그너슨법(Magnson Fishe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또는 1967년 '어업인보호법' 상 선박 압류로 간주되지 않는다(제3조 타법 적용). 또한, 협약 수역에서 어업 면허 수와 수수료를 지정하고 면허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제9조 면허). 미 상무부 장관은 태평양 도서국 당사국 정부 요청 시 미국 선박의 협약 위반 혐의를 조사한다(제10조 집행). 미 상무부 장관은 미국 어선의 보고 사항을 규정한다(제12조 보고). 조업 선박이 '어업 금지구역'에 있는 동안은 어구가 쉽게 어업에 사용될 수 없도록 보관한다(제13조 폐쇄 구역 어구 보관 요건). 미국 참치 조업 선박의 선장과 승무원은 옵서버의 모니터링 임무 수행을 허용하고 지원한다(제14조 옵서버). 미국 참치업계에 태평양 도서국의 기술지원을 위한 연간 기금 납부를 요청한다(제15조 기술지원). 분쟁 발생 시 협약에 규정한 바에 따라 미 국무장관은 중재판정부 구성을 위한 중재인을 임명한다(제16조 중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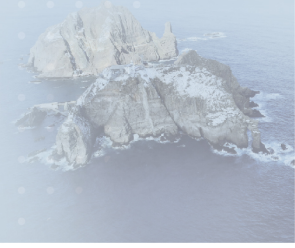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미국 '2023년 남태평양 참치협약법'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현재 미국 의회에서 아우무아 아마타 콜먼 라데와겐(Aumua Amata Coleman Radewagen) 하원의원(미국령 아메리칸사모아)이 발의한 2023년 남태평양 참치협약법(South Pacific Tuna Treaty Act)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⁸⁾ 이번 법 개정을 통해 2016년 남태평양 참치협약 개정 사항을 미국 국내법에 반영하면 이는 의회에 미국과 태평양 도서국 간 외교협상 결과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초당적 이행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협약 당사국은 협약 조문 현실화 및 어장 접근기간 연장을 위한 협상⁹⁾을

8) 2023년 남태평양 참치협약법(H.R.1792 - South Pacific Tuna Treaty Act of 2023), 118th Congress(2023-2024), 하원 개정안 제출(2023.3.24.), 하원 통과(2024.4.9.), 상원 회부(2024.4.10.)

9) 남태평양 참치협약은 1998년 발효(1998년부터 5년 동안 적용, 미국 참치업계의 입어료는 연간 250만 달러의 기술 지원) 이후 1993년 협약 연장(1993년 6월 15일부터 10년 동안 적용, 미국



통해 2016년 12월 협약 개정안을 채택했다. 2016년 협약 개정으로 미국 어선만이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협약 당사국 수역에서의 조업일수를 확보하고, 미국 선박이 관련 국가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어업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했다. 그러나 미국 국내법에 2016년 협약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해 미국 참치 조업 조건 및 선단 운영 유연성 개선을 위한 협상 성과의 완전한 실현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간 이런 한계를 협약 당사국 간 양해각서로 극복 해오고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심사한 브루스 웨스터먼(Bruce Westerman) 천연자원위원회 위원장은 ‘남태평양 참치 협약법’ 개정안은 협약 수역에서 어업 활동 관리 규제 체계의 효율성, 명확성, 집행 가능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안 개정을 통해 미국 참치 어업 선단의 수익성 있는 참치어장에 대한 접근권 확대 및 어업 활동 유연성 제고를 통해 모든 미국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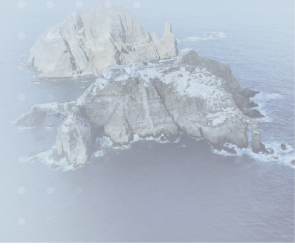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2023년 남태평양 참치협약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쇄 수역(Closed Area)’ 용어를 삭제하고 ‘협약 당사국 남태평양 도서국 관할 수역’으로 대체하였다. 협약 수역 내 조업 어선의 정의를 ‘상업용 참치 선망어업’으로 수정하고 날개다랑어(albacore tuna) 트롤 및 연승어업을 허용하는 예외(제6조)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협약 수역 내에서 참치 조업 시 사용 가능한 어구어법을 선망어업으로 제한한다는 점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협약의 참치 조업 허가구역, 공해, 미국 관할권이 적용되는 공해, 서경 146°의 서쪽 및 동경 129.5°의 동쪽 수역에서 참치 조업하는 선박¹⁰⁾의 의도적인 해양포유동물을 포획하는 방식의 어업 금지를 명문화하여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단속 구역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제14조(옵서버) 조항은 삭제하였다. 그 외 협약 사항 위반 시 조사 절차 및 제한 조치 사항과 태평양 도서국 기술지원 조항을 ‘기술지원, 훈련 및 역량 강화, 민간 부문 활동 또는 파트너십 이행 촉진’으로 구체화하였다.

정책적 시사점

미국 국무부는 ‘남태평양 참치협약’을 통해 미국 원양어업 어선의 중서부 태평양 지역에서의 참치 어업 접근권을 보장하고 연안국과 남태평양의 어업 및 해양 보존 문제에 대해 협력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어업협

참치업계의 입어료는 연간 400만 달러, 최대 55개 어업 면허에 대한 면허 수수료, 기술지원, 옵서버 비용, 남태평양포럼 협정에 따른 지원금 등), 2002년 협약 연장하였으며, 2016년 남태평양 참치협약 수정안(2016년 12월부터 2022년까지 유효)을 채택하였다.

10) 적용 대상 선박은 미국 1995년 어업법에 근거해 어업 면허를 부여받은 선박에 한정된다.



정을 어업 자원의 관리 및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파트너십 구축에도 활용하고 있다.

- 출처 : [1] FAOLEX DB, 「Treaty on Fisheries between the Governments of Certain Pacific Islands States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987」
[2] FFA 홈페이지 <https://www.ffa.int/2024/03/milestone-for-pacific-us-tuna-treaty/>(검색일: 2024.5.17.)
[3] 미의회 홈페이지 <https://www.congress.gov/bill/118th-congress/house-bill/1792/all-info>(검색일: 2024.5.14.)
[4] 미국무부 홈페이지 <https://2009-2017.state.gov/e/oes/ocns/fish/bilateral/c33153.htm>(검색일: 2024.5.17.)
[5] Saipan Tribune(2024.4.15.), "House passes Radewagen's South Pacific Tuna Treaty Act", https://www.saipantribune.com/news/local/house-passes-radewagen-s-south-pacific-tuna-treaty-act/article_4c5a9f3c-f9a2-11ee-ba15-0b0d82663aa3.html(검색일: 2024.5.17.)



3개월 내 행사계획

군소도서개도국 국제회의(SIDS4) | 2024년 5월 27일 ~ 5월 30일 / 앤티가바부다

- 주요 내용 지속가능개발 진행 상황 검토, 번영을 위한 새로운 향후 10년간 파트너십과 솔루션 제안

제60차 UNFCCC 당사국총회 보조기관 회의 | 2024년 6월 5일 ~ 6월 15일 / 독일 본

- 주요 내용 제58차 과학기술자문분과위원회(SBSTA) 및 제58차 이행보조기구(SBI) 회의 개최
-ETF에 따른 보고 도구 개발 진행 상황 업데이트, 국가 주도 전략 워크숍, IPCC 6차 평가 보고서에 포함된 배출지표 조사 결과에 관한 기술 워크숍 등

제34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총회 | 2024년 6월 10일 ~ 6월 14일 / 뉴욕

- 주요 내용 국제해저기구 사무총장 보고서 검토, 대륙붕한계위원회 위원장 보고서 검토, 국제해양법재판소 예산 사항 검토, 대륙붕한계위원회 위원 2명 선출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에 관한 정부간회의 | 2024년 6월 24일 ~ 6월 26일 / 뉴욕

- 주요 내용 국가관할권 밖인 공해와 심해저의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 논의

로도스 아카데미 | 2024년 6월 23일 ~ 7월 12일 / 그리스 로도스섬

- 주요 내용 유엔해양법협약 및 국제규범 현안 관련 강의

제61차 대륙붕한계위원회 | 2024년 7월 8일 ~ 8월 23일 / 뉴욕

- 주요 내용 신규 선출된 위원회 위원의 선언, 소위원회 및 기타 보조기관에 신규 위원 임명, 부분 수정안 검토(모리셔스, 팔라우, 포르투갈, 스페인, 쿠바, 모잠비크 등 제출분), 절차 규칙 개정, 과학기술자문 위원회 위원장 보고서 등 검토